

이스라엘이 조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수도 - 신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최근 선진국 중에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이스라엘에서도 적지 않은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조국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얘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전에도 '고려신문' 이 유사한 기사를 작성했었다

'고려신문'은 이미 8년 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편집부로부터 한 통이 배달되었다.



날치크 시 소재 대학교의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소연방 해체 이후 부인과 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곳, 즉 하이파 시의 근교로 이주한 우슈토베(카자흐스탄) 사람 알렉세이 리는 친척들이 카자흐스탄에

서 우스리스크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그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이루어졌다. 이별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알렉세이는 우스리스크에서 친척들과 통화할 수 있었으며, 기자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편집부는 전화로 그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알렉세이의 엄마와 누이도 이스라엘의 다른 곳, 즉 슬로미시에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에서 알렉세이의 둘째 딸이 태어났다. 알렉세이는 자료국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라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

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 가족들 역시 모두 만족스러워 한다. 고려인 전통과 고려인 음식을 잊지 않고 있다. 부인과 큰딸에게 고려인들의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다. 2006년 5월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 '고려신문'에

게재되었으며, 독립국가 연합 내 고려인 포탈 사이트인 ariang.ru에 다시 게재되었다.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제로 특별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흥미로운 역사, 고대 문화,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현대 연구 등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의료, 교육, 학문, 심지어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시기, 문화와 민족들의 수많은 역사적 기념물을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지리와 기후를 지니고 있다. 아침에는 갈릴리산의 침엽수림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헤르몬산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두 시간만 가면 텔아비브 근처를 흐르는 야르콘 강의 협곡을 만나고, 거기서 두 시간을 더 가면 꽃이 피던 대지가 아랍의 돌로 가득 찬 사막으로 바뀐다. 저녁이 되면 홍해의 해변가에 있는 이스라엘 최대의 휴양도시 에일랏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인구는 825만 명이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와 아랍어이다. 이스라엘은 중앙집권제의 민주주의 의회 공화국이며, 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화폐단위는 신 셰켈이다. 국가수반은 크네셋으로 불리는 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전권은 제한적이다. 완전한 권력은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공업 국가이며, 국가가 상당 수준에서 개입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니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은 근동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지니고 있다. 국제연합의 인간개발지수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의 독립선언으로 유대인 국가가 되었다. 다른 인종들도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 이스라엘은 종교와 상관없이, 무슬림을 믿는 아랍인, 기독교도인 아랍인, 드루즈파, 베두인, 사마리아인, 아르메니아인, 시르카시아인 등이 존재한다. 특히 드루즈와 베두인 의원들, 아랍정당과 의원들이 크네셋에서 각 민족을 대표한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류의 민족문화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인 75.4%가 유대인이며, 20.6%가 아랍인, 나머지가 4%이다.

3개 종교의 도시

이스라엘에는 관광 명소가 많다. 그 중 가장 중

요한 곳은 지중해의 연안에서 55킬로미터, 사해에서 동쪽으로 25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한 유대산에 위치하여, 기독교도, 무슬림 그리고 유대교도의 성지인 수도 예루살렘이다.

수천 년에 걸쳐 순례자들은 성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기독교인의 경우 성묘교회,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 갯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된 다른 장

소들이 있다. 무슬림에게는 알 아크사 사원과 암벽 위의 황금돔 사원, 선지자 마호메트의 승천지, 예언



자 다우드와 무사의 묘 등 이 있다.

다음 2 페이지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우수리스크에서의 비-보이 콘서트

노숙자들의 컴퓨터 자선단체 ‘타우’를 지원하기 위한 콘서트가 우수리스크에서는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온 프레쉬 패밀리(FRESH FAMILY)가 장교극장의 무대에 등장했다.

관객이 적지 않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브레이크 댄서들이 출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서울에서 내방한 예술가들은 한국에서만

로 방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문 기간 중 주어진 유일한 일정이 없던 하루를 휴식이 아닌 자선에 헌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남성들은 러시아어를 모르지만, 자신들이 지닌 기술과 선한 마음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멤버 전체는 무대 뒤에서 나와 사진 촬영에 응했다. 실로 한국식의 인내심으로 마지막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모든 희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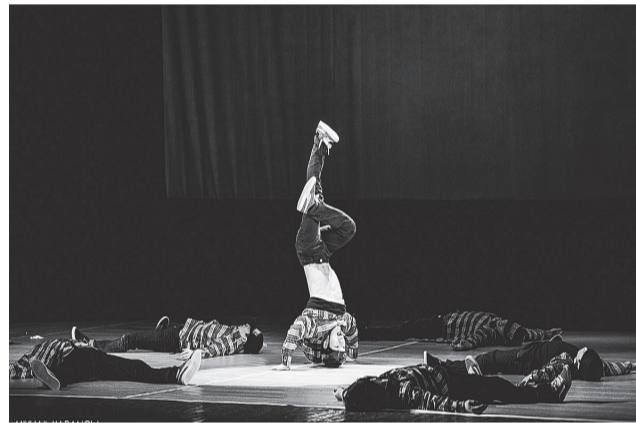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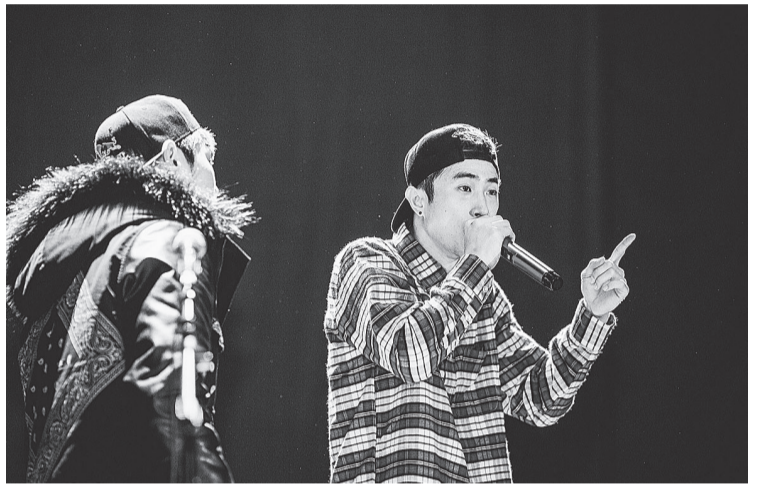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이다. 이 기관의 대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김은 아래의 사실을 강조했다.

“신부님 도미니크(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자 연혜주 ‘타우’ 센터의 설립자)께서 저를 찾아 오셔서 노숙자들의 컴퓨터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왜 필요한 일이지 썩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었죠. 페스티벌 중 ‘타우’ 센터에서 ‘노숙자’가 아흐마토바의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서는 놀랐죠. 눈물이 솟을 만큼 낭송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안식처 건립의 기원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도시에 서 노숙자들의 사망자가 수가 3배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운

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유명한 사업가로서 사회활동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씨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무주택자들의 안식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매달 자선센터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할 것이다. 컴퓨터의 운영자인 예레미나 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일 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들 중 150명이 문서를 작성했으며, 40명이 공공시설로 보내졌고, 82명은 숙박이 갖춰진 직업을 구했으며, 25명은 가족에게 돌아갔다(자식들과 친척들을 찾았다고



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룹이다. 이제 극동을 상용 목적으로

이 자선행사를 주최하고 조직한 것은 공공기관인 “우수리스크시

한다). 자선센터는 수용 인원을 30명으로 잡아 현재 만원 상태이다.

노숙자들의 컴퓨터는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기업에 들이닥친 위기가 재정 상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콘서트를 조직

한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나탈리야 아르카디예브나 씨가 ‘고려신문’에게 말했다.

알렉산드라 이바노바

이스라엘이 조국이 되었다

유대인에게 신성한 장소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기념비인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제1성전과 제2성전 중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지이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신자들을 위한 순례의 장소이며, 정부 소재지와 기관들이 산재한 지역이며, 실로 활기찬 삶의 도시이다. 현대 예루살렘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서쪽에 있는 첫 번째 유대인 교외에서 1860년부터 시작된 신 도시는 크기나 주민 수에서 구도시를 이미 오래 전

에 앞질렀다. 예루살렘의 심장은 구도시이다. 이 구도시는 역사적으로 ‘유대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기독교도 구역’ 그리고 ‘무슬림 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현대 예루살렘은 화려한 동방의 전통시장과 현대식 쇼핑 센터, 크네셋(의회) 또는 대법원 건물과 같은 것들이 구도시의 수세기에 걸친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 등 대

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통 유대인들

바지와 우아한 정장이 모든 것들을 현대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다. 서 이 곳으로 이주했던 루디크 김 - 최고의

운전기사가 이스라엘 내 고령인

들의 지리적 분포도는 광범위하다.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우리 동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장소로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텔아비브가 있으며, 다른 곳도 있다. 다수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로 오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자 및 주신문 편집인으로서 36년 동안 생활한 것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내를 자주 여행했던 것과 함께 재 이스라엘 한인들과의 신속한 관계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서로 만남을 통해 공통된 주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곧 친구가 되었다. 고려인들은 기꺼이 자신, 자신의 삶에 관해 얘기해 주었으며, 새로운 곳에서 영주하게 된 것에 대한 느낌들을 공유했다.

다음 4 페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려신문'을 읽는답니다

시카고에서 인사드 과 함께 찍은 제 사진
립니다. 존경하는 편 이 게재되었습니다.
집부님, 몇 년 전 귀 그 기사를 작성한 표
신문사에서는 한인 트르 볼코프 기자가



고 있습니다. 새로이 들 중에서 일부만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
알게 되는 사실도 적 리는데, 바로 그렇
지 않습니다. 귀 편집 기 때문에 젊은이들
부는 한인 역사, 문 은 다른 인종 집단보
화, 전통의 훌 다 높은 수준에서 자 이 적습니다. 교회에
륭한 옹호자이 신의 자녀들이 고등 서도 영어가 모국어
습니다. 최근 교육을 받고 전문 직 로 사용되기 시작했
두 개의 판본 업을 택할 수 있도록 습니다. 당연히 화가
에서는 한국어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게 만듭니다...
삽입지를 발간 따라서 청년 한인들 게 말씀드리겠습니
하기 시작하셨 은 대학 진학에 반드 다. 저는 유즈노-사
습니다. 대단 시 필요한 전문 지식 할린스크에서 태어
하십니다! 정 은 물론, 영어와 미 났습니다. 직업은 의
말 필요하고도 국 문화에 통달하려 사입니다. 미국에서
유익한 일입니 고 전력을 다해 노력 는 이미 25년 넘게
다! 합니다. 영어를 자유 살고 있습니다. 고

이곳에 있 자재로 구사하지 못 르바초프의 페레스
는 동포에 대 하고 미국사회를 이 트로이카 시기에 가
해 몇 마디 언 해하지 못한 상태로 족과 함께 이곳으로
급하고자 합니 는 진정한 성공에 도 이주했습니다. 이곳
다. 이곳 동포는 150 달하는 게 실로 어렵 에 살며 새로운 친구
만 명이 넘습니 기 때문입니다. 결과 와 지인들이 생겼습
다. 미국에서처럼 한인 적으로 재미 한인 2 니다. 그들 대부분은
들의 동화가 급속하 세대들의 삶은 그들 소비에트 고려인들
게 진행되는 곳은 존 의 미국인 동료들과 입니다.
재하지 않습니다. 미 거의 차이가 없습니 다. 우리 교회에서만
국에서 태어난 한인

조야 김춘옥

의 미국 디아스포라 인터넷으로 그 판본
에 관한 기사를 게재 을 체계 보내주었습
했습니다. 그 기사에 니다. 그리고 이제는
는 시카고에서 사할 지속적으로 신문을
린과 중앙아시아 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들의 만남에 참석 이처럼 저는 귀 신문
했던 다른 참석자들 사의 적극적인 독자

운 기사가 많습니 다. 이곳 동포는 150
그렇게 다양하고 흥 만 명이 넘습니
미로운 자료를 어떻 다. 미국에서처럼 한인
게 찾아낼 수 있는지 들의 동화가 급속하
그저 놀랍기만 할 때 게 진행되는 곳은 존
름입니다. 매 판본을 재하지 않습니다. 미
즐거운 마음으로 읽 국에서 태어난 한인

한국어 삽입지가 훌륭합니다

저는 '고려신문'의 는 필요하고 중요한 주
독자가 된지 얼마 되지 제를 보도하고, 이 지
않습니다만, 이미 이 역과 해외, 직접적으



신문을 애독하게 됐습 로 고려인들의 삶에서
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생한 최근의 사건들
출판물입니다. 편집부 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 든 판본을 기꺼이 구 있었으며, 언어에 대 는 올바른 행동을 취한
한 자문관이 되는 법 독합니다. 그러나 가 한 사랑을 내 아들에 것입니다!
을 알고 있습니다. 참 게도 심어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본의 내용이 특히 만 우리 아들도 한국어를 신문사의 직원들과 편
이야기를 펴내고, 전 족스럽고 매우 마음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집장인 발레리아 인노
통요리의 유용한 레시 에 들었습니다. 새로 위대한 사상가들이 언 켄티예브나 김에게 한
피를 공개하며, 미소 운 사업을 축하드립니다. 급한 것처럼, 언어가 국 설날을 맞이하여 전
를 짓게 만드는 최신 다! 기사를 러시아어 없으면 민족도 존재하 심을 다해 축하인사를
유머를 찾아주고 있습 는 물론, 한국어로도 지 않습니다. 우리 모 드리는 바입니다. 양
니다. '재미있어요'라 발행하는 카자흐스탄 두, 고려사람의 대표 띠 해가 모든 이들에게
는 표제는 관심을 끄 자들은 완전한 한국인 행복, 기쁨 그리고 새
니다. 이 신문은 민족 이 되기를 실로 상당히 로운 창작물에서의 성
전통을 비롯하여, 부 및 사할린주의 '새고 바란다는 생각이 됩니 공을 가져다 주길 바랍
등의 기념일 그리고 다. 그리고 한국어판 니다.
우리의 경축일을 올바 관 신문은 한국어로 작 려신문'은 모국어를 트베르시 고려인민
르게 치를 수 있도록 성된 삽입지와 함께 발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족문화자치회 회장
좋은 기사를 게재하고 행되었습니다. 재미있 사람에게 많은 도움 겸 민족문제에
있습니다. 어릴 이 될 것입니다. 이중 관한 주지사 고문
저는 고려신문의 모 때부터 한국어를 알고 언어를 도입한 편집부 드미트리 최

